

시론

공직자의 재산

4월 29일자 주요 일간지에는 주 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 공개 과정에서 제기된 불실 신고가 문제되어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고, 30일자에는 새로 김 모임 연세대 간호대학원장이 장관으로 발령난 기사가 실려 있다.

재산 때문에 장관사퇴 시민들 무엇을 느낄까

그 와중에 박영숙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었으나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점이 있어 제외되었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재산 문제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느낄까.

대부분은 무슨 공직자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가 하고 생각할 것 같다. 이번 새 정부에 입각한 인사들의 평균 재산이 10억원이며 이전의 김 오원이며 이전의 장 관들보다 많은 편이라는 신문기사도 있었다. 국민주택 규모와 집 한 채 값이 서울에서 1~2억원 정도 하는 세상이나 그런 집을 대체로 다섯 채, 지방 같으면 열 채 정도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사립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하면 큰 거부감이 없지만 공직자가 돈이 많다면 의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재산의 형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부자 집과 혼인을 하거나 또는 운이 좋아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은 산업화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국의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투기 등 탈법적 과정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의 '천민 자본주의'는 정경유착과 부정 부패를 만연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 시절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서민들에게 욕서 선망의 대상은 될 지언정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부자가 욕서 선망의 대상이 될 지언정 존경받지는 못하는 사회가 한국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부자에 대한 선망이 자신의 무능에 대한 한탄과 자조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동반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나머지 나도 기회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부정 부패에 관망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부정적 측면이라 하겠다.

한편 부자에 대한 존경의 철회는 과거의 선비 사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의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선비적 문화 풍토는 향후의 '민주 자본주의'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즉, '천민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되면 부자를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존경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공직자는 공인이 다. 공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장자라 할 만하다. 장자는 대개 부와 귀를 같이 지니는 존재이지만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중생의 아픔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보살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공인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장자의 상을 공인의 이상형으로 본다면 지나친 기대일지도 모른다. 부와 귀를 함께 지닌 공인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그 중 하나만을 가진 공인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 중 하나도 갖지 못한 공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공인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인 것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 공인에게 있는 것은 물질적 재산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 즉,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 즉,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경구 <경기대교수·사회학>

열린마당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 대통령이 4월17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필요성을 밝힌 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도 찬반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문화란 넘나들음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호기심만 자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잠식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인위적 억제 비현실적... 문 열어야"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해방 후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이전에 식민지통치 36년이라는 뒤늦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대중문화 개방을 반대한 이유, 특히 '한국적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대중문화의 약점은 마약, 동성연애가 성행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화가 일본보다 더욱 타락될 수도 있다. 이미 한·일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진 바지를 입고, 미국식 패스트 푸드 먹으며 같은 광경을 즐기고 있다. 청소년이 즐기는 대부분의 대중문화에는 차별이 없다. 상업성과 편리성 등으로 세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이 일본문화에 쉽게 융화되는 양을 쫓는다. 불교를 보기도 생각하자. 일본 불교는 AD 538년 백제에서 건너왔다. 그러나 일본 불교는 조사(祖師)신앙(종파의 교조 개인에 대한 신앙), 경문 하나, 또는 작은 분야 하나에 대한 집중력의 실존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령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산(比叡山)에는 '一隅에만 빛을 태운다'는 글귀가 거대한 비석에 새겨져 있다. 대국성을 내세우며 주권이 강한 한국적 불교와는 전혀 판

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각 분야에서 나타난다. 외래의 문화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족 고유의 원형에 여과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사실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인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화 시대에기에 엄청난 양의 과학, 기술, 경제제도에 관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족 고유의 문화와 밀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문화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며, 일본 대중문화의 인위적인 억제가 자칫 한국의 패색으로 비치기도 하고, 젊은이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정식으로 수용하고 도저히 윤리적으로 답답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것, 한국 것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척도에서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육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 때문에 우리 대중문화가 충분히 육성될 때까지는 일본문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일은 현실성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방영됐던 일본 민화영화 '세일러문'. 지난해 KBS-2 TV에서도 방영된 '세일러문'은 여자의 다리를 강조하고 집단적인 악행을 벌이는 등 선정성과 폭력성이 논란이 돼 방영불가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민 반일정서 감안 완전개방 무리

법현 <전중사 부주지>



김대중정부의 일본문화 전면개방 정책이 새삼 논란을 빚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무조건 완전개방은 현 시점에서 무리라고 보며, 국민의 정서와 수용태세를 감안해서 준비된 계획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서울 구경을 처음 온 서울 사람이 멋있는 서울 걸음을 흉내내다가 갑작스런 충격에 놀라 넘어진 뒤 그 멋있는 서울 걸음도, 정감있는 시골 걸음도 있어버려 제 집까지 가어서 갔다는 장자의 우화는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의 뿌리도 해방 이후 문화적 정체성을 잃은 서구 중심의 행진가들에 의해 지속되어 온 문화정책에 닿아 있다는 지적도 찬찬히 곰곰이 보아야 할 대목이다. 대개 하나의 문화가 다른 하나의 문화를 만날 때 처음에는 적대적이다가 중간에는 우호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각각의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치 사면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촛불을 켜 놓았을 때 촛불이 거울 벽에 그림자로 반사되어 무수히 비치지만 어느 것 하나도 거그러나 방에 비치지 않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가 하나 되는 모습은 이사 무애(理事無碍)한 것이며, 이 단계를 뛰어 넘어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로 그 은화한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는 교류는 사사무애(事事無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사면 거울벽을 설치해 놓기만 하면 어느 촛불을 켜 놓아도 서로 걸림없이 자기 모습을 유지한 채 빛날 수 있으므로 일본 문화도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기 모습을 유지한 채를 문화로 도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 유리벽과 같은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여서 권위적으로 개방하고, 개방당해온 일본문화와 우리의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 우리 문화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모두를 놓치고 있는 실정에서 받아들일 때 신중히 해야 한다.

한국불교 속의 왜색문화

일련정종·정토진종 등 30여 종파 국내 침투 불구용품 등 왜색화 조장

평적인 연구방법론 등이 상당부분 흡수되었다. 이로 인해 경전에 대한 체계적·분석적인 연구가 강조되었으나 수행·실천적인 해석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불교학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광복이후 일본 불교사적의 번역출판은 불교사상의 현대화와 대중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한국불교학계의 자체적인 저술활동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미술의 경우도 일본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채색시 원색계통의 색상사용, 일본 불교미술 용어의 사용

등이 그 예다. 이밖에 일본에서 직수입되어 불교용품 시장을 휩쓸고 있는 매일향 호문록 노리하시 등 일본향과 일본종 단주와 불상, 만월등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자령 천도(水子靈 齋度)'가 수입되어 유령등 '태아영가 천도', 일본식 납골시설 등이 일본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패 등 불교음악과 불교의식 부문에서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원형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불교계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여부를 떠나, 이를 계기로 불교 속에 스민 왜색문화를 파악하고, 우리 불교 고유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일제에 야합하여 조선불교를 왜색불교로 몰고간 친일승려와 친일불교의 병근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막대한 장애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해룡스님 <불교학> '민족사' 刊)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Health Longevity Suck' (健康長壽吮). Features a woman using the device, a diagram of the device with parts like '한지르 썸', '100% 황도링 받침', '목부3철자리판', and '고무벨트'. Text describes benefits for back pain and health, and lists a price of ₩130,000. Contact information for '성지관음회' is provided.